

전남도 '남부권 관광개발 구상' 총력

순천·광양·장성·영광 등 4개 시·군 사업계획안 반영 발굴사업비 5365억 건의... 문체부, 8월까지 마무리

전남도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순천시, 광양시, 장성군, 영광군 등 4개 시·군의 사업계획안을 반영하기로 하고 이를 문체부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10명의 전문가, 연구진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단은 최근 지역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 반영을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입지, 여건, 교통, 자원성, 연계성 등 지역 상황을 살피고, 지역 제안사업에 조정 필요할 경우 활용 가능한 추가 부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순천에서 웰니스 토탈힐링 치유관광거점 조성 사업 브리핑을 듣고 해양치유센터 부지를 확인했다. 순천시는 현장 조사단에 부지 확보가 신속하게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광양에서는 폐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조해

지난 3월 개관한 광양예술창고와, 장미·코스모스 등 계절별 피는 꽃이 다양한 서천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망덕포구를 잇는 현수교식 보도교와 망덕산-배알도 수변공원을 둘러봤다. 지역 공동브랜드와 연계 상품화를 통해 연구진 제안사업인 '소소관광 12선 프로젝트'로 반영할 예정이다.

다도해 순례 상품화 사업 후보자인 장성군은 정관스님(백양사 천진암 주지, 사찰음식의 대가) 전 통사찰음식을 테마로 순례자의 밥상, 교육프로그램, 음식과 연계한 명상 수행프로그램 등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제안했다. 조사단은 축령산과 백양사 걷기길을 연계한 순례자를 위한 센터 관광스팟과, 축령산 편백을 활용한 순례 차밭 조성 부지를 확인했다.

조사단은 또 영광에서 4대 종교 문화유적지인 불교 백제불교최초도래지와 기독교의 생생한 역사 순

교지인 염산교회를 둘러보고 현장조사 일정을 마쳤다.

문체부는 이번 현장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마지막으로 분석·검토한 후 이달 말부터 서울에서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수립 연구'와 관련한 협의회를 열어 사·도, 기초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문체부를 지속해서 방문해 발굴 사업비 5365억원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에 도·발굴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문체부, 문광연,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며 "전남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이 간절히 만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8월 초 '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최종 보고회를 한 후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8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2022년 사업 구제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혁신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권고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 등 3대 방향 14개 과제 담자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29일 '2045 에너지 자립 도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광주시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에너지 자립 도시 이행 체계 강화, 신재생 에너지 수용과 탈탄소화 인프라 구축, 시민참여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이익 공유 등 3대 방향, 14개 혁신과제를 담았다. 위원회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워 매년 결과를 분석한 이행 달성도를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제안했다.

재생 에너지원이 풍부한 전남·북이 연계해 호남권 조광역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직류배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 신기술 도입, 직류 송배전 시스템 기술 개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호남권 신재생 에너지 통합운영센터 유치 등 과제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체계로 전환을 위해 자금 조성, 발전소 개발, 일자리 창출 지원도 주문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실·국·과장급 29명 전보인사

광주시는 29일 실·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7월 1일자로 단행했다. <명단 21명> 이번 과장급 이상 전보인사는 코로나19 안정적 대응과 업무 일관성, 조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직위만 소폭으로 교체했으며, 1년 미만 전보제한 인사원칙에 따라 본인 희망을 최우선 반영했다.

특히 2급(실장급) 승진 전보는 박항 시민안전실장 1명으로, 광주시 최초 여성 2급 간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3급 전보는 이정석 종합건설본

부장 등 3명이며, 4급은 김대중 비서실장 등 25명이다.

김종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코로나19 적기 대응과 현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7월 19일까지 5급 이하 전보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본인 희망 전보를 존중하며, 조직 안정성과 업무 성과 제고를 위해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고, 실국 균형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중견기업 투자유치 협약식 29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중견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도, 8.2GW 해상풍력 '상생일자리 포럼'

국내 해상풍력 핵심기업 대상

전남도가 29일 진도 솔비지에서 12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두산중공업, 유니스, CSWIND 등 해상풍력 관련 국내 유수의 기업체와 한국풍력산업협회, 남동발전,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상생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남도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계획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해상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자리를 함께한 기업, 유관기관과 전남 해상풍력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 한국풍력산업협회의 '국내외 해상풍력 전망', 남동발전의 '해상풍력 국산화' 발표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4월과 5월 국내 절강 관련 기

업·해상풍력 기업 15개사와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온택트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초에는 도내 전력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해상풍력사업 설명회도 가졌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해상풍력사업을 통해 450개 연관기업을 유치·육성하고, 양질의 12만개 일자리를 창출해 미래 지역 신산업 개발의 선도모델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발전 방안을 적극 반영해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성공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실국과장급 프로필

박항 시민안전실장	의사출신으로, 코로나19 K방역 주역으로 꼽힌다.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책임감도 강해 조직내 신임이 두텁다. 특히 광주시 최초 2급 간부라는 명성에 걸맞게 간부 공무원이 갖춰야 할 리더십은 물론 대내외 소통 등 정무감각까지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56(광주)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침착하고 무리없는 업무처리 스타일이 강점이다. 행정직이지만, 기술 성향이 강한 한국항공대학교 출신 경험을 살려 행정과 기술 실무를 접목한 업무 처리 방식이 강점으로 꼽힌다.	
▲58(광주) ▲북구 부구청장 ▲미래산업정책관	특히 순간 상황 판단능력과 조직 적응력 등이 뛰어난다는 평을 받는다.	
이정석 종합건설본부장	행정고시(50회) 출신으로 꼽힌 업무 스타일이 강점이다.	
특히 온화한 성격으로 조직내에서도 상하간 모두 유대관계가 좋고 매사에 열정적이라는 평이다. 또 40대 젊은 간부답게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언론과의 회 등 대외 정무감각도 좋다.	행정고시(50회) 출신으로 꼽힌 업무 스타일이 강점이다. 특히 온화한 성격으로 조직내에서도 상하간 모두 유대관계가 좋고 매사에 열정적이라는 평이다. 또 40대 젊은 간부답게 공사 구분이 명확하고, 언론과의 회 등 대외 정무감각도 좋다.	
▲42(광주) ▲비서실장 ▲문화산업과장		
박상백 북구 부구청장	전형적인 예산 전문가로 유연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무리없이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강점이다. 특히 예산철이면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한 국비 확보에 남다른 능력을 보여 광주시를 대표하는 '예산 달인'으로도 통한다.	
▲56(화순) ▲예산 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